

특집/육계불황은 언제까지인가

肉用業界 종합분석

신정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1. 상황과 분석

78년 12월말부터 시작된 육용업계의 침체는 올해 5월 초순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계속되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경기의 특징으로 작년 8. 3부동산 투기억제조치와 금융긴축정책 내지는 오일쇼크등 경기의 호불황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3대사건이 전산업을 위축시켜 울산그룹을 위시한 많은 회사들이 도산되었고, 사치성 상품업소와 고급유흥가등이 특히 많은 타격을 받아 왔다. 우리들이 종사하고 있는 육용업계의 불황도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추세중의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월간양계 79년 6월호에서 타진된 업계불황의 분석과 전망에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불황의 그 첫째이유로서 “생산과잉”을 들고 있었다. 즉 육용업계 침체요인을 사회경제추세보다 생산과잉에 더 큰 비중을 두었으며, 따라서 육용업계는 설상가상격으로 우리나라 전산업경기의 위축이라는 타의적인요인에 의한 소비감소와 생산과잉이라는 자의적인 요인에 의한 상품물량증가의 변수가 함께 맞아 떨어진 결과로 73년 오일쇼크이후 최대의 불황을 기록케 된 것이다.

작년 12월말부터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상황을 열거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기간중에 특징의 하나로서 뉴캐슬병의 창궐이었다. 작년 10월경부터 최초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뉴캐슬은 전국적으로 만연되었고 지금까지도 일부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닭의 절대수수가 많아져 계구밀도가 증가되었고, 방역에 무신경한 신규생산자의 많은 출현이 질병만연의 원인과 더욱 가속시키는 결과가 된 셈이다.

생산과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장기불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우리들 자체에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표 1. '79 저반기 상황분석

월	별	상	황	비	고
7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값 폭등(근당 10,000원), 배추값폭락(포기당20원) • 말경부터 육계시세 급락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선거 • 초순경부터 병아리 처짐 • 대구 및 부산지역 뉴깃슬 만연 • 제 9대 대통령 취임 • 연말 경기 위축(전반적인 경향) 			
7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아리 덩핑난무 • 정부 농산물 수입개방 표명. • 구정경기 위축. 			
7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화장 생산량 감소경향 • 하이부로 350 / kg 최저시세 형성. • 뉴깃슬 계속 만연(전국적) • 사료파동 극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400~500원선 / kg • OPEC 석유가격 인상 9.0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산그룹 붕괴 • 물가 무더기 인상, 경제 안정종합시책 발표(정부) • 서울지역 뉴깃슬 만연 • 부화업자 도산 속출. • 부화장 판매불가능추 자체 입추경향. • 소비절약운동 대대적인 캠페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시세 상승 • 종계 노계상인 육용종계 노계 구입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업계 불황 • 시세 보합세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석유값 59%인상 • 사료사정 완화됨(품질향상, 구입쉬움) • 농수산부 비축계육 방출 			

작년 연말까지 많이 증가된 생산자와 부화업자들은 다같이 경쟁적인 자세로 끝까지 밀어부친 것이다. 연말년시와 구정경기가 불황의 상태로 계속된 뒤 생산자들은 “이제는 패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진장하게 널려있는 값싼 초생추를 계속 입추하게 되었고 부화업자들도 단기적인 침체로 경기가 회복되리라 생각하였든가 아니면 버티다보면 소위 “쇼부”가 나라라 생각하면서 계속적인 생산

을 하였고, 판매되지 아니한 초생추는 급조된 자체 양계장에 과잉입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더욱 무리한 경영으로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불황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세미가격이 하이부로그격보다 한번도 높아보지 못한 매우 기이한 현상을 낳게하였다. 종계업자나 부화업자의 자체입추현상이 가장 심했던 계층은 대체적으로 78년도에 새로 출발한 작은 규모의 신규업자들이었다. 원종계

(GPS)농장에서의 무분별한 종계(PS) 판매는 전국의 곳곳에 500수~1,000수씩의 종계가 심어졌고 이러한 종계에서 생산된 초생추는 대개가 판매보다 자체입추경향으로 흘렀다.

육계가격은 썬미부로와 하이부로가격이 서로 바뀌가면서 자리를 위치해야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가격경향은 병아리생산 후 미판매추의 무조건 자체입추결과로 질병(특히 ND)과 썬미시세의 만년하위현상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 유행하고 있는 “썬미출하는 반드시 뉴캣슬을 물고온다”는 생산자의 말이 바로 이것을 대변하고 있다.

가. 육계가격

77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의 육계가격 동향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년도별 육계가격 동향(원/kg)

월별	77	78	79	비고
1	700~600	800내외	600~500	
2	750~550	750~550	500~350	
3	450	550~480	400~550	
4	500	500내외	500내외	
5	600~700	500~650	600내외	
6	650	620	600~650	
7	650~750	650~800~700	700내외	
8	850~750	730~780~730		
9	650	700~600		
10	600~450~600	570~850		
11	700~750	900~800		
12	650	70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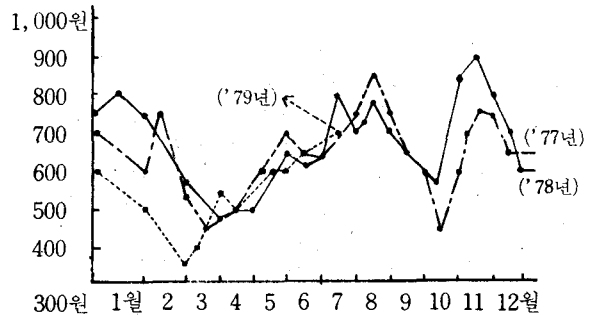
참고 1. 서울, 경기지역 중심.

2. 차량대상시세 중심.

77년도는 3월의 최저시세 450원/kg과 8월의 최고시세 850원/kg으로 나타났었고, 78년도는 역시 3월의 최저시세 480원/kg과 최고시세는 이례적으로 11월의 900원/kg이었으며 이패가 일부 중상에 의하여 1,000원/kg가

그림 1. 년도별 육계가격 비교 ('77-'79)

단위 원/kg.



지 매매된 사상초유의 높은가격이었다. 바로 이러한 높은 봉우리뒤 올해 2월은 350원/kg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년도별 육계가격을 그래프로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위의 그림을 보면 매우 묘한 것이 3월과 4월은 3년동안 한결같이 시세가 낮고, 9월과 10월 또한 계속 2년동안('77~'78) 낮았으며, 역시 삼복중인 7월과 8월이 높았고, 11월 김장철과 1월~2월이 높았다. 3년동안 공히 5월은 시세상승의 지점이 되고 있는 현상도 매우 재미있다.

나. 육용종계(PS)

77년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의 육용종계(PS)분양현황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7년도는 약 80만수, 78년도는 약 120만수, 79년도는 5월까지의 집계가 약 77만수가 분양되었다. 본 자료는 대한양계협회로부터 제공되었지만, 통계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까울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 77년도의 80만수는 미 집계된 수치가 더욱 많으리라 생각되고 78년도는 종계분양사항에 깊은 관계가 있는 업계 인사들의 몇번모임에서 상기의 통계보다 약 30만수정도를 더 추가하면 거의 정확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표 3. 년도별 육용종계(PS) 분양현황(우기준)

월별	77	78	79	비고
1	10,118	85,136	105,260	
2	33,010	145,717	150,310	
3	74,645	198,210	248,400	
4	111,170	193,180	145,980	
5	108,909	204,500	120,830	
6	94,183	125,140	(10~12월)	
7	93,710	75,960		
8	77,350	49,530		
9	72,680	43,930		
10	51,185	42,190		
11	32,820	58,850		
12	42,050	58,240		
계	801,830	1,280,583	770,780	

(대한 양계협회 제공)

참고 1. 수입종계 포함.

2. 78년 분양수수중 미집계된 수수 약30만 수로 추정

지 계속되는 대한양계협회와 농수산부 당국의 부화생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감시감독은 종계분양집계의 정확도를 차츰 높게 하여 주고 협회의 통계집계방식의 변경으로 79년도 올해의 종계분양수수는 더욱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어 종래의 음성적이던 수량이 양성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5월까지만의 분양수수가 거의 80만수에 가까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렇게 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6월도 채 못다한 5월말 현재 분양수수가 80만수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올해 분양된 육용종계수수를 월별로 보면 3월이 약 25만수로서 2월과 4월에 비하여 무려 10만수가 더 많은데 이는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종계가 올해 3월에 가장 많아 2월과 4월에 비하여 약 5만수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3월은 수입종계와 국내생산종계 공히 많은 수량이 분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8년과 79년도의 종계도입현황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78-'79 육용종계(PS) 수입현황(우기준)

월별	78년	79년	비고
1	11,926	15,000	
2	13,027	28,160	
3	8,913	78,000	
4	—	25,000	
5	—	35,000	
6	—	8,500	
7	—	미정	
8	28,499	—	
9	12,100	—	
10	18,817	—	
11	7,730	—	
12	25,000	—	
계	(126,012) (총 20,393)	189,660	

참고 1. 표 3의 종계 분양현황에 포함된 수수수입

종계수입이 금지된 이후 77년도부터 다시 종계가 일부 수입허용되어 추천되었지만 실제 국내 도착한 것은 78년 1월부터이다. 그러므로 표 4의 자료는 종계수입이 재개된 이후의 도입수량 전량이며 이의 통계는 틀림이 없다. 78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제 2차 수입여부의 논란으로 일시 중단되었었으며, 작년도 육용종계의 총 도입수수는 126,000수(우기준)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의 집계가 약 19만수로 나타났으며, 2월과 3월이 가장 많은 수량을 도입하였다.

표 3과 표 4에서 보듯이 3월의 종계 분양수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부화업자들의 종계수입추경향에 대한 위기감이 3월까지 만해도 별로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월까지 만해도 일시적인 경기현상으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생산과잉에 의한 좋지않은 징조로서의 뜨거운 맛을 물랐던 것이다.

육용종계의 분양에 바로 직결되는 육용원

종계(GPS)의 수입현황을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78-'79육용원종계(GPS) 수입현황
(우계열 우기준)

월별	78년	79년	비고
1	—	1,000	
2	—	1,000	
3	—	—	
4	—	—	
5	—	—	
6	—	8,000	
7	—	미정	
8	—	"	
9	—	"	
10	6,000	"	
11	2,097	"	
12	4,179	"	
계	12,276	10,000	

작년 10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육용원종계의 수수는 78년도에 약 12,000수, 올해 6월까지가 10,000수로서, 올해 6월에 수입된 6,000수는 80년도에 종계(PS)를 분양하겠지만, 2월까지 매월 연속 수입된 수수 약 14,000수는 바로 올해에 종계(PS)를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예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육용초생추(cc)

앞의 "나"항에서 논의된 육용종계 분양수수에 근거를 두고 77년부터 지금까지 월별 초생추(cc)생산 잠재력을 산출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77년 1월부터의 초생추생산에 영향을 주는 종계(PS)는 75년 8월에 분양된 것부터이다. 종계나이 8개월령부터 초생추를 생산하고 이후 10개월동안(72주령) 생산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표 6에 따르면 77년도는 4,000만수, 78년도 8,000만수, 79년도는 1억 2,000만수의 초생추가 생산되고 77년은 월별 약

표 6. 년도별 육용초생추(cc) 생산잠재력
단위 : 만수

월별	77	78	79	비고
1	265	409	1,042	
2	292	448	1,087	
3	321	516	1,090	
4	351	579	1,089	
5	362	645	1,099	
6	367	687	1,100	
7	362	708	1,075	
8	368	717	992	
9	340	727	904	
10	323	760	864	
11	324	844	905	
12	364	937	925	
계	4,039	7,977	12,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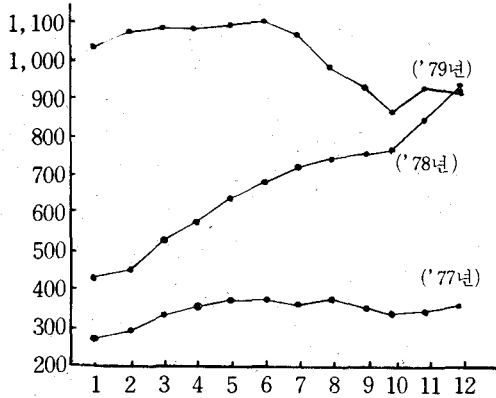
- 참고 1. 75.8 종계~76.5종계수수가 77.1월에 초생추 생산함
2. 종계 생존율 90%, 산란율 50%, 부화율 70%, 기준함.

300만수代, 78년도는 월별 약 400만수에서 700만수代로 생산되다가 78년도 11월부터 급증하여 800만수를 추월하여 올해는 월 1,000만수代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분양된 종계가 모두 정상적으로 초생추를 생산한다고는 볼 수 없다. 종계의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요인은 매우 많다. 질병에 의한 종계자체의 수수감소와 산란능력 저하, 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도태등 각종 요인에 의한 능력저하는 분명한 수치로 표현될 수 없다.

표 6에 대한 초생추 생산 잠재력을 도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앞의 표 3, 년도별 육용종계 분양현황의자료가 정확치 않다고 치더라도 이를 토대로 한 초생추(cc) 생산 잠재력의 년도별 월별 비교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2를 보면, 우리들의 육용업계 현실과 부합됨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종계분양수수에 대한 추세만은 정

그림 2. 년도별 육용초생추(cc) 생산 잠재력 비교 (단위: 만수)



확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7년, 78년, 79년도의 초생추 생산 잠재력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시적인 물량의 처짐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78년 11월의 구정병아리까지는 초생추의 부족상태가 업계에 충만하였고, 이때까지가 또한 육계업계의 호황기였다. 그러나 78년 11월 이후부터 생산잠재력이 경증뛰어 오르면서 실제 생산도 많이 되어 초생추의 공급과잉과 동시에 육계업계의 불황이 밀어 닥쳤다.

77년과 78년에 비하면 높지만 79년 8월부터의 생산잠재력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고, 10월은 79년 최초로 800만수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부화업자와 양계업자의 자체조절과 지금까지의 불황과 질병에 의한 앞으로의 초생추 생산력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가에 따라 경기는 좌우될 것이다.

라. 육계사료

육용초생추(cc)의 생산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경기의 예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자료인 육계사료 생산량을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년도별 육용계 사료 생산현황(단위M/T)

월별	77	78	79	비고
1	10,042	26,600	50,588	
2	12,574	29,663	57,704	
3	17,670	42,115	59,698	
4	22,035	43,042	53,488	
5	25,651	43,914	53,215	
6	24,962	44,316		
7	25,983	40,904		
8	23,463	32,276		
9	18,583	35,266		
10	18,472	31,193		
11	18,057	34,175		
12	23,069	45,261		
계	240,561	451,725	274,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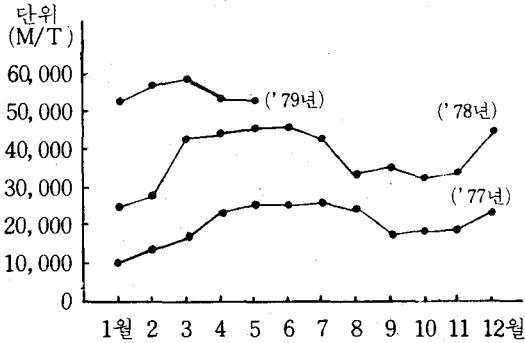
- 참고 1. 77년도 배합사료 총생산실적 190만톤 (양계사료 115만톤)
- 2. 78년도 배합사료 총생산실적 269만톤 (양계사료 164만톤)

77년도 육계사료 총 생산량은 24만톤, 78년도는 약 45만톤, 79년도는 5월까지의 생산량이 약 275,000톤으로, 78년도는 77년도에 비해 188%의 신장율을 나타냈고 79년도는 5월까지 이미 87년도의 약 61%를 생산하였다. 이에 비하여 초생추 생산잠재력(표 6)의 신장율은 78년도가 197%, 79년도가 153%씩 전년도에 비하여 신장되었으며, 이는 사료의 생산증가 추세와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육계사료의 월별 생산동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7년과 78년도는 3월부터 7월말까지의 월별 생산량이 많았던데 비하여 79년도는 작년 12월부터 증가되어 2월과 3월이 높았다가 4월부터 떨어지고 있어 불황의 심도를 예상할 수가 있다.

물론 육계사료생산량도 폐지사료 등으로 의존됨에 반드시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하에서는 모든 통계자료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그림 3. 년도별 육계사료 생산
월별추세 비교('77-'79)



간주되고 있다.

이상이 지금까지 약 3년동안 우리들이 걸어온 발자취이며 현재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육용업계의 얼굴이다.

2. 결론과 전망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으면 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는 말은 전망을 논할 때이면 언제나 한번씩 일깨우는 절대원칙이다.

올해 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는 이미 모두 분양된 상태로서 그 생산잠재력을 표 6과 그림 2에서 검토하였다. 80년도의 경기는 이미 분양된 종계와 앞으로 분양되어질 종계의 수량에 좌우된다. 지금까지의 부화업계 경기가 그렇게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말 현재 이미 약 80만수로서 전년도—78년도에 비하여 약 60%가 분양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앞의 표 5에서 나타난 육용원종계(GPS)의 수입사항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종계(PS)를 생산할 수 있는 원종계(GPS)의 도입수수가 약 14,000여수로서 연말까지 원종계(GPS) 1수당 종계(PS) 생산수수를 평균 30수만 잡더라도 합계 약 40만수 이상이 분양되어질 것이며 이외에 국내에 이미 확보 증산되고 있는 하이브로, 한협603등, 기타 여

러 계종을 망라할 때 79년도 올해의 육용종계 총 분양수수는 160만수~200만수가 무난할 것으로 쉽게 추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내년도의 경기는 당연히 생산과잉에 의한 불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의 결과는 정석적인 공급과 수요량의 예측에 의한 산술대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희망을 걸 수 있다. 예를들면 79년도의 사료생산추세가 예년과 달리 4월부터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등이다. 초생추 생산잠재력에 의하면 4월과 5월도 계속 증가되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줄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황에 의한 자연감소와 질병등에 의한 감소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경기의 결과에 대한 전망이 맞아 떨어질 확율은 오히려 50%가 안될지도 모른다. 경기의 결과는 항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양계인의 생각에 언제나 좋은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과잉생산했을 때는 불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불황이리라 생각하고 생산치 아니하면 그 반대로 호황이 될 수가 있다. 그 좋은 예로서 작년 11월의 김장철 때 호황과 올해의 장기적인 불경기이다. 작년 가을은 모든 사람이 불황일 것으로 생각하고 병아리 생산도 하지 않고 입추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 하반기의 경기도 현재 대개가 불황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도 몇가지의 이의(異議)가 있긴 하지만, 불황으로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대추세에 감히 반론을 제기할 용기가 없다. 이성 이전에 감정이 먼저 불황으로 몰아부쳐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인 뒷바침도 또한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장과정중의 과도기로서 초진축의 대불황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때에 필자는 오히려 먹은 식품을 생산하는 축산업 특히 양계업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적인 발전을 하고, 모든 국민의 눈에 핏발을 세우고 누렇게 떠있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찬물을 끼얹어 냉각시키기위해서라도 건축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건축속에서는 모든 산업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타격을 받는다, 다행이도 닭고기 산업에 대한 불황의 타격은 그 정도가 매우 약한 쪽인 것 같다. 이번 건축과 불황은 국민들의 정신을 바로잡았고 쇠고기의 위치와 닭고기의 위치를 바로 잡게 해 주었다. 닭고기는 대중식품으로, 또한 대량공급과 수요가 국민의 주종육류식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78년말 양계진흥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필자는 당국에 대하여 쇠고기보다 닭고기를 국민의 주육류식품으로 삼을 생각이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쇠고기 수입이 여의치 않아지고 국내생산이 어려워지면 더욱 닭고기의 필요성은 증가될 것이다.

최근에 와서 더욱 다행한 것은 그렇게도 거대하기 힘들었던 사료가 판매경쟁이 시작되면서 물량과 품질·모두가 양호해졌다는 사실이다. 자유경쟁의 경제원칙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한 사실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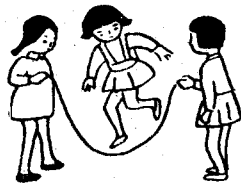
양계업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생산자이다. 생산자가 앞으로 살길은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흔들리지 않을 전천후경영방법을 강구하는 길 밖에 없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육계생산자의 사업에 대한 자세는 매우 특이적이었으며, 천직으로서의 부동의 자세로 임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육계생산자는 육계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우선 양계장부터 정리하고, 시설투자에 관심을 높혀 생산에 안정적인 기반부터 확립해야 한다. 시설투자는 하나의 자기 재산이다. 가장 결핍되어 있는 사항이 양계장의 시설문제이다. 양계장의 주인이 양계업에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생산기반인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일차적인 성공을 거둔 셈이다.

필자는 월간양계 78년 12월호에서 79년도를 전망하는 글에 “생산성 제고와 방역과 합리경영이 79년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천후양계경영이란 바로 이것이다.

생산자의 정신자세가 바로 잡혀져 있고, 생산기반(시설)이 확고히 되어 있는 위에 방역과 생산성 제고와 합리적인 경영을 할 때 그 양계인은 어떠한 불황이 와도 견딜 수 있으며 성공할 수가 있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지난 7월호 7월의 안테나(32p) 표 2. 79년 P.S분양실적은 금년도 외국에서도 입된 PS물량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79년도 종계(PS) 분양실적을 누락없이 보고하여 주신 GPS농장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